

聖句

적은 우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 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章 32節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25) 2623番  
發行人 吳 允 治  
主 筆 田 榮 澤

社說 韓國의 立場

조선의 신정권이 평화공세를 취하는데 대하여 미국이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온 세계의 주목거리가 되었다.  
오래 끌어오든 휴전회담이 다시 시작되었고 또 여기에 대하여 우리 이대통령과 국회에서 절대반대의 성명을 발표한 것은 본래에 이미 실린 바요 세인이 다 잘 아는 일이다. 휴일이 없는 휴전은 파전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관만이 아니라 미국 인사중에도 주지는 바이어니와 이 문제는 우리의 조국의 영원한 운

명에 관계되는 것이요 자유 세계 전체에도 큰 관계가 있으며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에도 생사문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원하고 평화를 원하는 자가 아니다. 방금 우리의 많은 자제가 전선에 나가서 날마다 피를 흘리고 있고 우리 민중은 살길을 잃어버리고 부랑인의 신세가 되어 방황하고 있는 이 형편이니 세계에서 평화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만큼 간절이 이를 바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귀한 피를 수없이 흘리고 말로 다 할

細菌戰術現地調査를要求

카나다等七介國代表

자유세계 七개국은 조선주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에서 국경선이 세운전술(細菌戰術)을 취하였다』는 비난에 대하여 공정불편(公正不偏)한 실체조사를 하도록 하자고 공산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 七개국 대표들은 공산측이 비난한 『세군전술』 사실 여부를 공정하게 조사하자라는 것을 거부한다면 세계에 대한 자기들의 선전의 가치가 알게 될 것이다 하였다. 총회정치위원회 석상에서 의견 교환한 것은 베루-회합 카나다 벨기-인도네시아 터키-올파이등 七개국 대표로 그들은 온 모다 공평한 현지조사를 주장한(十六개국案)을 공산측이 수락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북한과 중공이 이 현지조사를 승락한후 총회의 일명하는 五개국위원회에서 공평한 조사를 행하게 하려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전선에 참가한 十六개국이 제안한 것이다. 회합과 벨기-대표는 이 제안은 조선의 평화공세에 대한 절호의 기회(絶好의機會)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카나다와 벨기-와 인도네시아 올파이 등의 대표도 이에 보조

韓國國民은自立을熱望  
킹夫人視察報告談

로 마추어 『공평한 조사의 필요』를 주장하였다. 작곡대표들은 아메리카 한국재단 부총사실 단 버나드-킹을 부인은 한국을 시찰하고 뉴욕에 도착하자 한국국민은 한국의 사정을 열광하고 있는 데 사립에는 혼란과 불확실성이 필요하다고 다음과 같이 말 하였다 『한국국민은 공정한 국제 처하되 있으면서도 참을성이 많고 고칠 필요가 있는 하나 그들의 나라를 부흥합에는 여러가지 원조가 필요함에 우선 의사와 간호 부가 요구되고 있다 나는 한국에서 캐롤리나 푸로레스탄트 선교사들의 귀한 활동에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았다』 (뉴-유에프 U.S.I.S)

韓國統一案에英國觀測  
微妙한發言이今後注目

영국 런던에서 AFP가 정부 국회동의 발표라고 하면서 전하는바에 의하면 영국정부는 한국통일문제의 해결안이 제출

수 없는 요란을 당하면서 도 앞으로 계속하여 친통한 피를 흘리고 아모런 고난이라도 참고 모든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오직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자유조국의 통일이다 이 조국의 통일이 없이는 우리는 휴전도 바라지 않고 평화도 원치 않는 것이다.  
그것은 공산군을 압류함과 두만강 국경에서 물아내기전에는 통일도 없고 평화도 없기 때문이다. 휴일이 된다고 해도 북한에 공산군의 위력이 엄려되거든 하늘과 현전선 북방 구실마일선으로 한 국문제를 해결하며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한국을 분할한다는 것보다 『한국전세를 공산측에 내준

眞偽二歴  
조선의平和

최근 세계소식 중에는 놀라운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도 의미있는 것은 지난 정월 초순부터 조선의 중심지에 이르러 유대인 배척운동이 여섯은 4월 초순에 이르러 조선수상인 『반역죄』라고 하면서 세포하였던 유대인 9명의 사를 석방하고 그들을 고초한다는 것 이나 마찬가지로 한 장 어리석은 평화책이요 한 국의 입장도 도무지 돌아보지 아니한 잔인한 계획이라고 할수 있다.  
혹은 정치적 해결의 한 방책으로 미국이 중공을 승인하고 그 대신 한국의 유리한 정치적 해결을 하도록 하면 되리라는 의견도 있는 모양이다 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것은 곧 남북한을 통하며 자유선거를 행하므로써 자유와 통일의 한국을 실현하자는 것인데 이것조차 공산측에서 동의하지 아니할 것이지만 설사 동의하더라도 이북에 공산군이 있는 한 결코 자유선거는 될수 없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도대체 음모모략과 침략으

의국의 의지-위원도...  
필요를 감행히 역설하였다. 인도네시아대표는 이 위원회구성에는 합의가 가하리라고 말하였다.



中部勉青修養會 四月十八日 終了

『召命에 眷顧하라』  
개회설교는 오기가 막명준 목사께서 하셨는데 『기독교는 兩年을 부른다』는 제목으로 약二十分간 강설하셨다. 박목사는 유교와 불교의 宗主들은 청년들을 부르지 않고 經世자(經世者)들을 불렀으나 우리主 예수그리스도께서는 제자十二名중 다 少年의 청년을 불러 세웠더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여야 한다고 한후 청년은 용감하고 의분이 있고 단순한 점이 많을만 하라 하셨습니다. 박목사는 다시 말하기를 예수께서는 현대 청년에게 깊은대로 가르치시는 데 그 깊은 뜻은 첫째 기도의 힘 깊은 뜻을 의미하는 것이고 둘째로 감정에서 떠나 신앙적인 것은 사람을 의미하고 셋째로 우정의 후한것을 의미하고 육쓰포이드 그들은 동등한 대표적인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성경중 단정의 하나인 조급성을 버리고 눈앞에 잡히지 말고 참고 기다리

市經世圖



荊克의 信仰 生活을 一

長老教  
元老

李自益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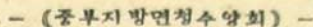
군주에게로 먼저  
면시절부터 당시에  
하는 혁명운동에  
참석하였던  
二十五세 되는 一九〇四年에  
임신하고 필자의  
심판가운데  
그리고 나가는  
남은심으로  
나를 돌아볼  
고향의  
친구들을  
본 신양청년을 부르시는  
고향의 부르신 부부님의  
충성하라! 고함하리라  
정중이로 하여나.

물 가운데도 처음 믿을 때  
가장 어려운 영국의 길을 밟  
고 나온다고 할수있다 저가  
본지 가산하여 부친대신 섬기  
는 장인이 이 사실을 알고  
조종하 불의하고 집안의 유이  
요 약인이니 다시는 전도하지  
않고

그리나 목사님은 마음의 생  
각하기를 이제 어떠한 금전문  
제로 내가 이미 구주로 섬긴  
예수를 버릴수있으며 내가  
받은 은혜를 내 동포에게 전  
하지 아니할 수있으랴 하고 여  
전히 사방 동네로 다니면서

한해를 말한후 우리도 세계기  
독성년의 일원으로 사명을 완  
수하도록 하여야한다고 강조하  
여 말하고 우리의 사명이란 것

現實에 着實한 實踐을 期待



午後에는 총회청년국장 김원  
치목사로 부러 『기독교청년운동의  
발단과 현상』에 관한 강연이  
있었다. 목사는 기독교청년운동의  
現狀은 영의적인 모습을 보이  
고 있으나 그 창설기는 심히  
미미하여 거기에 희망을 두는  
자도 적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단일한 기관으  
로써 발전하는 너무 커서 본파  
적 위원을 두고 오하려  
는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  
시간적으로 늦은듯하고 수확사  
으로 적은듯하나 큰 희망과  
적은 일에 꾸준히 있는 용  
기를 가지고 천국을 도모하며  
모여서 성결을 잃고 기도하며  
청년자신들의 문제를 하나씩  
검토하고 가능한 일에서 부단  
실천하는 무리가 되라』는 권

저녁 六時半부터 한시간은 그리스도청년운동에 관한 토론 회였는데 三十分간 『세계 기독교청년회』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나중남서의 감언이 있었다. 씨는 오솔로청년대회와 엠스텔담청년대회와 지난 十二月인도대회의 중심 문제와 아세아 기독교자들의 당면

동 학업중에 그리스도의 정병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피차 노력하자 그것이 기독교세개운동이 한부분이라고 결론을 내리었다 청중은 이말에 절찬이 많았으나 다음 감사의 시간 관계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七時五十分에 『日本基督教團』

는 일본 기독교단 중부요구 청

勉青地方修養會所感

關東地方集會

관동지방이라는 말은 우리 총회에서 오一加끼이동(大垣以東地方) 즉 도+로+一(東京)까지를 두고 부르는 말인데 청년국에서는 거리상과 관계(距離上關係)로 관동평야내(關東平野內)만을 관동지역으로 부르고 시즈오카(靜岡)방면에서 오一加끼이치를 중부지방이라 부르고 집회도 따로 모이게 하였다. 이번에는 중부지방집회에 관한 것을 썼으면 좋을 듯하나 집회순서로 보아서 관동지방참관소감을 먼저 쓴다.

관동지방회는 이미 상세한 보고를 보아 알수 있었으리라라고 생각하나 참가인원이 소수였고 신학생과 신학을 이롭게 하는 이와 수년전에 마친사람들을 파악 입학수속중의 사람과 선교사들의에 일한대학을 마친 자를 이들을밖에 홍일점(紅一點)의 심은때전도사 그의의 면본이있다.

지회는 처음부터 노력적 두색이 있었다. 이것을 예상하고 푸도가 작성되었는지 첫머리의 예비설교에 요코하마(横浜)교

는 도에서 논리를 전개하여 설화한것은 그의 실천적인 의  
견과 아울러 자리가 잡혔다.  
뿐만 아니라 관동지방 이번  
수양회는 미조노(水野氏)와  
선묘사들 감삼당 같은것 외에  
는 우리안에 있는 젊은 일  
들이 솔직하게 각자의 신학적  
견지에서 의견을 발표할수 있  
었던것이 자당도 할수있는  
것의 하나이었으리라고 본다.  
성목사가 목회자로서 교회에  
출입하는 청년의 신앙상태를  
배우한후 청년국장 김원치목사

라고 한것은 두분의 태도와 내용이 조화도 불ուն이거니와 성취있는것을 보였나.

저녁시간에 일본NCC청년부 간사 미즈노씨(水野氏)로부터 『세계는 복을전도면에 협력과 일치를 요구하며 주안에서 하 나되는 길을 지향하고 나간다』 하는 각국청년의 실천면의 참 문이 열리자 논의는 활발하여졌던것인데 밤 늦도록 이구석 저구석에서 의견이 크고 적은 소리로 교환되었던것은 청년들 더욱 학생기분에서의 의론적인 교정년운동 같은것이

동경신학을 졸업하신 배기환씨가 『實踐의出發點』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中心에는 깊은 신학적 교회는 있어 함부로 반론하기 어려운 논거(論據)가 있었다고 본다. 질문 응답이 약간 있었으나 신학적 소양의 차의로 환담은 일부분에만 교환된 유 감이 있었던것이다.

다음은李인하씨의『교회와 현실』이라는 제목하의 강연이 있었는데 미즈노씨의 세계기독교정년운동 같은것의 배경

다음은 **李仁하씨**의 『**교회와 현실**』이라는 책목하의 **간언**이 있었는데 **미즈노씨**의 **세계기독교청년회**를 **잡** 잡은것의 **배경**

교사들도 **한국기독교청년회**의 **회로서**는 **회귀한** **모임**이 **있다**  
**고** **중심**으로 **기뻐하던** **사실**은  
**필자의** **我田引水**가 **아니다**. (繼)

리카에서는 종교서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고  
한다.  
푸토레스탄트계통의 출판업자

宗敎書販賣轉盛

크리스찬·씨이엠프·모나리  
지에 보도된바에 의하면 아메  
리카에서는 종교서적에 대한  
관심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푸도레스탄트계통의 출판업자

이 교파서와 참고서라 하는바  
금후는 유네스코자금 十六萬달  
라도 교파서인생존장 시설을  
구입하리라한다. (U.S.I.S.)

---

一 훈계자의 말 3115  
二 훈계와 명령 36115  
마조막 기도와 인사 316118

팔

求道者

說教

예수最後宣言과命令

마태二八章十八節二十九節

韓景職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가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하  
실 마지막 시간에 열한제자  
가 간절한 마음으로 일러선  
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전세의 선  
언입니다. 옛날 알렉산더대왕은  
유물잡에서 일어나서 굉장한  
세력으로 세계를 정복하여서  
으로 인도의 절반까지 차지하  
하였으나 일찍이 이런 선언은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선언이  
허공을 치는 소리요 허장성세  
(虛張聲勢)의 쓸데없는 말이  
었는가요 아닙니다. 세계역사에  
어떤 세력이요 이 전세를 흔  
들어 본일이 없었습니다. 정치를  
중심으로 전세나 경제나 과학  
이나 사상의 전세가 한번도  
예수의 전세를 떨쳐본일은 없  
었습니다. 정치의 전세가 이 전세  
와 부딪쳐 본일이 한두번이  
아니었으나 결국은 다 실패하  
고 말았습니다.

로마제국의 강한 전세가 이  
전세와 세번 동안이나 충돌  
하여 보았으나 결국은 무릎을  
꿇고 말았고 다시 그후에 북  
방에서 내려온 파바리즘(야만  
인들)이 기독교를 눌러 보려  
고 하였으나 결국은 이것도

무릎을 꿇고十九세기의 굉장하  
발달한 자연과학이 또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었고 사상적  
(思想的)으로 최근의 나치스주의  
나파시스주의나 일본주의가 아  
군하고 충돌하였으나 역시 여  
지없이 파멸을 당하였고 오세  
유물주의와 무신론을 배경으로  
상은 공산주의가 상당한 전세  
를 가지고 이 전세를 필박하  
고 있지만 저들의 운명이  
장차 어떻게 될것은 말하지 아니하  
여도 환하게 내다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을 잘아신 주님께  
서「세상에 있을 제 너희가  
환난을 받으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十六  
33 하셨습니다. 그리고 묵시록  
기자는「세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저가  
세계에 왕도움을 하리라」하고  
확실한 예언적 선언을 하였을  
니다. 우리가 가만히 눈을 감  
고 일천구백여년 동안에 된  
일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과  
연 진리인것을 깨달을수 있으며  
만왕의 왕이오 만주의 주인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  
게 될것이옵니다.



校座  
會學  
教師講  
教授法

禮拜의方法

魯安理

(3)

『이제 하나님 아버지과 같이  
말씀하십시오』하는 간단한 말을  
하루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  
는 준비가 다 되어있었던것이  
다. 한 중증부에서『동화와  
예수』라는 문제를 생각하던  
때였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동화를 하였던  
데 하 소년은 예수이야기를  
하면서 예수께서 산에서 혹은  
배 위에서 하신 모양을 하며  
보이는것이였다. 들던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하  
는

신자들에게 큰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너희는 가서」한 말  
입니다. 「가거라」하심것입니  
다.  
이것은 이때의 주께서 열한  
제자들에게 내려는 최후의 명  
령이 옳시다. 우리 믿는자는 다  
이 명령을 순종하여야 되겠습  
니다. 이 명령을 지킴으로 받  
은 열한 제자들은 이것을 순  
종하였고 그중에도 베드로는  
가장 충성하게 이 명령을 지  
키는 동안에 생명을 바쳤습니  
다. 리빙스턴은 이 명령을 순  
종하기 위하여 압록강 아루라  
에 들어갔고 히드스펠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중국에  
가서 죽었고 도마스는 이 명  
령을 순종하여 조선을 왔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자가 이 명  
령을 순종할 때에 나타날때에  
감제로 순종하도록하시는 일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때에 예루살렘교회에  
서만 부글 부글 끓고 있을조  
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죽  
게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  
게하고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되고 그 결과에 그들  
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  
파되고 교회가 세워되었습니  
다  
한국은 서북지방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남쪽에는 아직  
복음이 골고루 전해지지 아니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변이후  
이북교인과 목사들이 전난을  
피하여 남쪽으로 오게된것은  
서북에서 은혜받는 신자들이  
들은듯한 느낌이 나서 결국  
이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여쭙자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  
던것이다. 실로 예배는 그들  
의 느낌과 사상의 자연스러운  
표현이었다.  
이와같이 자연이나 혹은 인  
간의 요구에 직면할 때에 여  
기서 자연의 예배경험이 교역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은것이  
니 교회화교는 어린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갖후어 주  
어야 한다. 교사의 주의만 있  
으면 교회에 있으면서라도 이  
렇게 할수 있는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가시며 또 우  
리가 그와 교제할수 있는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일할 때나  
정난할 때 혹은 기쁠 때나  
슬플 때 성공했을 때나 실패

이때에 와서 복음을 전하  
교회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설리인줄 압니다. 우리 사역은  
가가지고 직장은 가지고 있지  
라도 그 직장을 따라서 전도  
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믿는자는 다 각각 전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 명령을 순종  
하는 사람의 대한 인약은 합  
해 하시겠다 하심것입니다. 모  
세가 가메스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온전 정탐하고 백성  
들이 낙심하고 슬퍼할때에「내  
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하셨고  
또 호 수가 가나안 땅으로

傳道欄

새사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째의 은  
혜는「죄의 용서」요 그리고  
그다음의 은혜는 영혼의 갱생  
이다.  
사람의 죄악이라는것은 마치  
인도사람이나 흑인의 살빛같이  
서 그 영혼에 붙어있는것이요  
거기 타고 난 성품이라 풀면  
히 없이 할수가 없는것이다.  
서양 어떤 곳에서 술을 매  
매하기를 금했더니 술을 즐기  
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여 일  
을 하다가 틀만 있으면 차를  
타고 후 배를 타고 다른 도  
서로 술을 먹으러 다니는데  
전에는 일을 다 한 다음에나  
저녁에나 잠서 먹는 자들도

했을 때 어떤 때를 불문하고  
우리의 진정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잘 이용하여서 자연의 예배가  
우러나게 하면 학생들로 하여  
금 하나님과 더불어 내면적인  
교제를 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는것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신변의 기회를 하나님의 임재  
와 그 사랑에 연락시키는것은  
실로 훌륭한 공헌이 아니고 무  
엇일까. 이런 방법으로 산 경  
험으로 하나님과 말하는 습관  
을 양성한 사람은 부자요 크  
게 복받은 사람이라 하겠다.  
1. 예배의 형식면.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였지  
만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제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행하나라! 한 것이 성결된  
과 공산당과 싸울 때에도 우리 중에 있거니와 사람이 되  
를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  
주님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피약에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임 물들과 피의 사슬에 얽매어  
나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살든 사람이 해방을 받는 일  
게 하지 않는 것은 아직 힘있 온 사람의 힘으로는 것이 부  
게 싸우지 못하는 것이오 힘있 가없는 일이다.  
싸움힘이 없는 것은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입재하시는 믿음이 없는 것은 싸움 영혼을 깨워시키고 따라서 사  
이 을시다 旧『세사람』에서 람의 동성을 고쳐주신다 회개  
하고 계수를 믿는 다에게

대낮에 먹으려 가게되요 오쳐  
 려 왔으니 섰 먹자고 하여  
 결국 술을 따도이 먹게되요  
 그러니까 위생상으로나 경제상  
 으로나 능률상으로나 가정에나  
 여러가지 손해와 폐단이 많이  
 생기게 되있다고 하는 이야기  
 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술  
 을 과히 먹다가 침중에 여러  
 번 망신을 하고 창피한 꼴을  
 당하고 다시는 술을 입에 대  
 지아나하리라고 단단히 결심하  
 고 술마시는 오른손 무명지를  
 제손으로 짚었다 그 짚은 손  
 에 악을 바르고 봉대로 싸매  
 고 다니면서 한동안은 술을  
 안먹었으나 얼마 안되어서  
 그 손이 다 나기전에 봉대로  
 의지하여 영혼을 평생시킨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속하  
 고 하나님외 사달과 예수의  
 사당에 감격함을 받고 그  
 달에 그 영이 독아져서  
 암이 변화를 받는것이다 이  
 은 심비하신 하나님의 성신인  
 심으로 되신바 심비한 일이다  
 이것은 보충일이 아니라 한  
 적이다 죄인이 하나님의  
 은 변화하여 새사람이 되는  
 은 할 기적이라고 할수있는  
 이다  
 이와같이 평생함을 받은  
 람은 비로소 죄악에서 구원  
 얻은 사람이요 그때에는  
 죄를 미워하고 의로운 일을  
 사모하게 되는것이다 이제  
 는 죄를 따르고 악마를 섬기

|                  |                  |
|------------------|------------------|
| 우리의 그 참다운 느낌을 표  | 주일까지 그 준비를 너너히   |
| 현하는 면이 또한 있어야 한  | 할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선생 |
| 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 | 온 그 계획의 내용을 물어   |
| 한 에배 계획을 만물기가 아  | 보았다. 그러나 이에 대답하는 |
| 주 어렵게 되는것이다. 특히  | 것은 결코 생각 같이 쉬운건  |
| 언령과 경험의 다름 때문에 더 | 이아니었다. 우선 좋은 찬송가 |
| 속 그런것이 다 학생을 에배  | 가 필요하였다. 어는 찬송가  |
| 자리에 앉겠지 앉혀 놓기보다  | 택할까? 그래서 찬송가 찾기  |
| 좋은 계획을하여 진정한 에배  | 를 시작하여 겨우 하나를 어  |
| 를 드리는 훈련을 할것을 교  | 어 내었는데 『제목이 필요하  |
| 사는 목적삼아야 한다. 그렇지 | 다』는 의견이 나왔다 선생은  |
| 위하여는 에배 순서나 순열을  | 제목이란 무엇인가 물었다. 그 |
| 하는 문제는 어린이들의 협력  | 임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어  |
| 을 얻으며 그 의견을 잘 섭  | 서 모두를 웃음이 터졌다. 교 |
| 취할 필요가 있다.       | 사는 그렇게 급히 할것 없이  |
| 1 한 중등부에서는 교안에   | 내닫까지 연기하는것이 좋을   |
| 있는 그림에 감동을 받았다.  | 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동기가 |
| 그래서 자기들도 부의 에배를  | 나고 모두가 이에 찬성하였다  |
| 한번 인도하여 보자는 작정을  |                  |
| 하였다. 그들의 생각의는 다음 |                  |

옛날 어떤 왕이 훌륭한 성  
전을 지으려고 했다. 그 성전  
을 지을 좋은 터를 구하려고  
하였다가 마침내 택한 곳은 어  
떤 의좋은 무형제의 땅이었다  
이 형제는 그 아버지에게 유  
산으로 받은 큰 밀밭에 농사  
를 하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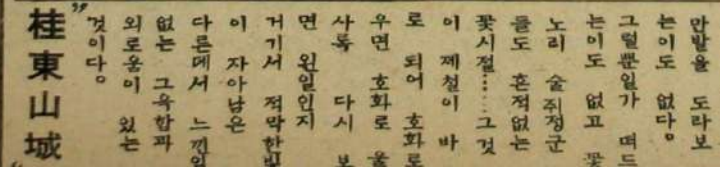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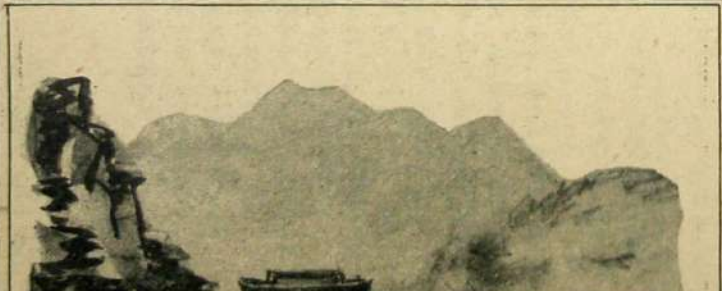
를 지어서 가솔에 추수를 해  
가지고 놀이 뛰놀고 열제는  
각각 생활하기를  
『내 동생은 아이가 많아서  
살기가 어렵지만 나는 하나도  
없으니 이렇게 많이 안가지고  
도 살수 있으니 절한단 동생을  
주리라』

신분 오린것을 그 신분기자의 하노이에서 U S I S 의 모든 하는바에 의하면 과거 二 개월

입을 벌리고 억지로 넣어주었  
 다는 형편없는 절은이었으나  
 예수를 믿는 동시에 아주 변  
 하여 판 사람이 되어 평화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착  
 실하고 훌륭한 생애를 보내게  
 되었다.

또『조지·풀라』라는 사람  
 은 젊어서 도둑질을 하고 감  
 옥에 들어간 일까지 있는 사  
 람이나 예수 믿고 새사람이 된  
 다음에 세계에 드문 착한 사  
 람이 되어 육히 불성한 교아  
 를 위하여 험써 일하므로 일  
 생동안에 十二만명 교아를 구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김예근이라는 사  
 람은 二十五년동안 형사노릇을  
 하면서 독립당과 그밖에 무죄  
 한 사람을 많이 죽이고 술궤  
 먹고 사람 잘 때리고 안하무



경의선(京義線) 개동역(桂東驛)이라고 하여도 알은 아는 사람만 알치는 못할것이다 개동이란 곳은 사리원과 황주의 중간에 있는 정거장이다. 이 정거장東原 일리쯤 되는곳에 허무어진 山城이 있다. 세오로 산에 새우고 중앙에는 커다란 개수(溪水)를 품고

있는데 충경으로는 새로히 뛰  
이난것은 없으나 缺고적은 缺  
門안에 드러서면 계수의 구비  
를 따라가는 좌우 길에는  
용이던 살구꽃 스물이나 우거지  
는데 갈수록 길은 약간씩 노  
파진다. 五六丁쯤 가면 山中亭  
에 이르러 절간에 당도하는데  
거기까지도 살구꽃은 연속되어  
그난만한 경치는 일필치 절색  
이라한들 과연이라할자 없으리  
라 절간(寺) 뒷마루에 주저앉  
으면 꽃에 취하여 말도 없세  
라 그러나 곳은 시골이라 이  
아름다운 꽃의  
만발을 도라보  
는이도 없다.  
그럴뿐일가 며드  
는이도 없고 꽃  
노리 술취정군  
들도 흔적없는  
꽃시절... 그것  
이 제철이 마  
로 되어 호화로  
우면 호화로울  
사독 다시 보  
면 원일인지  
거기서 적막한  
이 자아남은  
다른에서 느낀  
없는 그윽한파  
외로움이 있는  
것이다.



위에서, <sup>△</sup>이 이더라면 <sup>△</sup>으로  
 이 이어나면 <sup>△</sup>으로 적고

(2) 위의 「햇웃, 웃어른, 짓이  
 기다」와 같은 접두사로서 <sup>△</sup>  
 소리와 같은 소리로 나는 것  
 은 모두 「<sup>△</sup>발침」으로 적으며

(3) 못 (사람), 엘 (이야기) 첫  
 (아들) 따 같이 체언 (體言)  
 위에서 쓰이는 관형사 (冠形詞)

田葉澤作

했다. 성설했다고 보고 앞날의  
일이 염려가 되었다 그리고  
손님들의 일이 몹시도 원망스  
러웠다. 그리고 기생을  
넷씩이

그리고 빛이 있을 동안에 부지  
런히 진실하게 일할지 오 어  
등이 오기 전에……. 일동은  
교회를 숙이고 잠잠이 들었다

신분증 (課讀料)

|                        |                                                                         |
|------------------------|-------------------------------------------------------------------------|
| 一 個月                   | 四〇圓                                                                     |
| 半年分                    | 二四〇圓                                                                    |
| 一年分                    | 四八〇圓                                                                    |
| 但一年分을 先拂하여 주시<br>는 年次에 | 四五〇圓으로<br>해 드립시다.                                                       |
| 一 現金證爲 證로              | 보내실 때는<br>東京都千代田區神田區藥町<br>二一四 福音新聞社로<br>一 振替口座로 보내실 때는<br>東京一八二五三八基督新聞社 |

金聖浩

大阪市北區梅田町二一番地  
電話 福島(45)四七二〇番

京都市上京區大宮通蘆山寺上ル  
西入社横町288 電話西陣(4)5852番